

기호일보

2008년 3월 10일 (월)

제5894호 창간 1988년 7월 20일



김문수 지사가 지난 7일 화성시 우정면에 소재한 화웅간척지를 방문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장관에게 경기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. <경기도 제공>

화웅에 세계 최고 승마장 추진

김 지사, 정운천 장관에 간척지 개발 건의

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화웅간척지를 현장방문했다.

김 지사와 정운천 장관은 이날 화성시 우정면에 위치한 화웅간척지를 둘러보고, 현장 위주의 선진 농업정책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서해관광벨트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

김 지사는 “이렇게 경기도에 위치한 간척지를 방문해줘 감사하다”며 “장관님의 저서인 거북선 농업을 읽었는데 제 평소 생각과 일치한다. 차가 있다면 장관님은 프로인데 저

는 아마추어다.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경기도 31개 시·군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어 정 장관은 “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간척지”라며 “대통령계도 앞으로 농업은 도지사, 시장, 군수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. 현장과 힘을 합쳐 추진동력이 더 빠르게 힘을 낼 수 있게 하자”고 당부했다.

또한 김 지사는 “지금 계시는 간척지 4공구 330ha 부분에 세계 최고의 승마장을 해보고 싶다”며 “축산 분야의 어려움 해소 뿐만 아니라 농업,

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보고 싶어 이렇게 말 관련 산업에 대해 건의한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정 장관은 “이념의 시대는 지났다”며 “가치가 훌륭하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화답했다.

이와 함께 김 지사는 ▶농지소유제도 개선 ▶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축소 ▶황해권 세계경제자유지구 구축 등 4개의 건의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정 장관에게 전달했다.

정훈영 기자 hyj@kihollbo.co.kr